

전라도 대표 작가 작품 한자리서 만난다

광주시립·전북도립미술관 교류전 ‘호남의 현역작가들 II’

광주·전남, 김효삼·박구환·심우채·허임석
전북, 류재현·박전복·이석중·조현동 초청
4월 29일까지...두 지역 작가 작품 비교 전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과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지난해부터 교류전을 시작했다. 두 미술관에서 각각 대표 작가들을 선정, 지역 미술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는 프로젝트다. ‘호남의 현역 작가들’을 타이틀로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첫 전시에는 광주·전남의 김명우, 박세희, 박정용, 송영학, 설박, 이인성, 이조흠, 이정기 작가가 참여했다.

올해는 광주시립미술관으로 장소를 옮겨 ‘호남의 현역작가들 II’전을 오는 4월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에 초대된 이는 광주·전남의 김효삼, 박구환, 심우채, 허임석 작가와 전북의 류재현, 박전복, 이석중, 조현동 작가 등 모두 8명이다.



류재현 'ROAD'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전북 지역 작가들의 작품은 새로운 느낌을 준다. 활동하는 지역은 인접해 있지만 작품을 풀어내는 방식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작가들과 차별성이 보여 흥미롭다. 류재현 작가의 'ROAD' 시리즈는 생생한 사실감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한참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현장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 같은 유화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치 맑은 청량한 숲 속을 걷고 있는듯, 잔잔한 호숫가에 머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추억’을 주제로 다양한 계절을 표현한 박전복 작가의 작품들은 유화가 주는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두터운 질감이 인상적이며 풍성한 화면들이

안정감을 준다.

조현동 작가는 공감·채집, 자연·경계라는 주제로 민화적 느낌을 가미한 꽃과 새 등을 표현했으며 이석중 작가는 ‘삶·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꽃들을 화폭에 옮겼다.

광주·전남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허임석 작가의 ‘남도 아리랑’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 군상들은 저마다의 표정과 포즈를 갖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한지에 그려낸 작품들은 은은한 매력을 풍기며 독특한 감성을 자극한다.

김효삼 작가는 번짐이 인상적인 수채화의 매력을 그대로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세월의 다께가 묻은 돌담에 드리워진 가을의 흔적 등 호남의 아름다운 사계를 다양하게 풀어냈다. 판화를 제작하는 박구환 작가는 이번에는 판화 대신 회화 작품을 전시 중이다. 아름다운 남도 풍광들을 배경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치해 관람객들에게 여유와 편안함을 제공한다. 그밖에 심우채 작가는 화면을 가득 채운 바위와 나무를 수채와 혼합매체를 통해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두 미술관은 지난 반세기의 근대화 과정에서 호남이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운명적 공동체였음을 인식하고 호남인의 문화적 동질성과 독자적 정체성을 다시 찾는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문의 062-613-7146. /김미은기자 mekim@



허임석 '남도 아리랑'

바이올리니스트 이해정 독주회 1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이해정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이해정<사진>은 예원 및 서울예고를 거쳐 연세대 음대를 4년 전액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독일의 쾰른 국립음대에서 이고르 오짐을 사사했으며 맨해튼 음대석사 및 전문 연주자과정을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부천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제주시향, 천안시향, 강남교향악단, 충남교향악단, 맨해튼음대 오케스트라, 함부르크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수의 오

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현재, 페스티벌앙상블, 아베그트리오, 디앙상블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바흐의 ‘파르티타 1번’,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할 예정이며 전주대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이주용 교수가 함께한다. 일반 2만 원, 학생 1만 원. 문의 062-360-843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광주 공연



25일 ‘ACC 슈퍼 클래식’

양성원·안희찬 교수 특별출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전 시간에 대중과 함께하는 ‘ACC 브런치 콘서트’에 이어 정통 클래식 공연을 중심으로 한 저녁시간 대의 ‘ACC 슈퍼 클래식’을 새롭게 시작한다.

첫 프로그램은 독일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25일 오후 5시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1.

세 계적인 지휘자 프리츠 바이세가 뛰어난 기량을 가진 솔리스트들을 모아 1989년에 결성한 이후 2000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홀에서 연간 6회 이상의 정기연주를 이어오는 독일 정통 클래식 실내악단이다. 이들은 2006년부터 러시아, 체

코, 스페인 등 세계 10여국을 투어하며 월드클래스 오케스트라임을 증명해 왔다. 2014년 첫 내한 공연 이후 2년에 한 번씩 내한 중이며 광주에서는 국내 투어 6년 만에 처음으로 공연하게 된다.

이번 공연은 예술감독이자 콘서트마스터인 가브리엘 아도르나니 이끌며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양성원(건국대 겸임교수), 트럼펫 연주자 안희찬(추계예술대학 관현악과 교수)이 특별출연한다.

레퍼토리는 안톤 아렌스키의 ‘차이코프스키 주제에 의한 변주곡’,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C단조 작품 35’, 멘델스존의 ‘현악 교향곡 12번 G단조’,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이다.

티켓은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서양화가 고희자 개인전 ‘자연, 멜로디를 담다’

30일까지

LH 휴광갤러리



‘선인장 바라기’

갤러리에 꽃들이 활짝 피었다. 푸른 담불 속에 수줍게 얼굴을 내민 들꽃들은 수수함이 느껴지고, 선인장과 어우러진 꽃무리는 색다른 느낌을 준다.

서양화가 고희자(송원대 교수) 작가가 ‘자연, 멜로디를 담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30일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LH 휴광갤러리.

이번 전시에서 고 작가는 다양한 꽃그림과 함께 모과 등 정물화를 전시한다. 수시로 아의 스케치를 나가 현장에서 만난 꽃과 나무를 눈과 마음에 담고 그곳에서 얻은 모티브를 재해석해 화폭에 옮기는 고 작가는 약동하는 봄을 맞아 꽃그림을 중심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수채화 작품들은 물과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

지며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번짐이 꽃들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꽃무리를 만들어내고 유화는 화려한 색채와 질감이 만나 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색감으로 변신하는 선인장은 고 작가가 즐겨 그리는 소재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제주도 선인장과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꽃그림을 모티브로 제작한 아트 상품으로 스카프도 판매한다.

조선대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고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황토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 정동갤러리 초대전, 부산 타워갤러리 초대전 등을 가졌다. 토·일요일 휴관. 문의 062-360-31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점심 특선 오전 한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등·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